

# 中國 古典詩歌 작품 수 계산에 대한 일고찰

- 蘇軾 <竹枝歌> 9章과 歷代 '和陶詩'를 중심으로

金甫暻\*

## <목 차>

1. 들어가며
2. 시가 작품 수 계산에 있어서의 혼선 양상
3. 시가 작품 단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합리적 계산 방안
4. 나오며

## 1. 들어가며

중국문학에서 詩歌 작품 수에 대한 관심은 시기적으로 비교적 이른다. 예컨대 孔子는 일찍이 《詩經》의 작품을 두고 “詩 三百篇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생각함에 사악함이 없다”<sup>1)</sup>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三百篇’은 개괄적인 숫자이지만 현존하는 작품이 305편임을 감안하면 실제에 가까운 숫자이다. 중국문학의 鼻祖인 《詩經》 이래로 이와 같이 어느 책 혹은 어느 작가의 작품 總數에 대한 언급과 기록은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오늘날 전통시기 중국시인의 작품 창작에 대해 연구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 明知大 中文科 助教授.

1) 《論語·爲政》: “子曰: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 思無邪.’” (楊伯峻 譯注,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2002, 11쪽)

어느 작가가 이루어낸 혹은 어느 古籍에 실린 작품의 규모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 고전 시가문학에 대한 연구에서 한 작가가 평생 남긴 작품 수, 특정한 책에 수록된 작품 수, 특정 작가의 특정시기 작품 수 등에 대한 고찰 혹은 언급은, 연구자가 그것에 얼마나 큰 의미를 두느냐에 상관 없이 대부분 포함된다.

필자는 일찍이 拙稿 <蘇軾‘和陶詩’研究>(이하 ‘拙稿’로 줄임)를 통해서 蘇軾이 남긴 ‘和陶詩’의 규모를 파악한 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 많은 이들에 의해 통용되는 淸나라 王文誥의 124首說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을 비롯하여, 明·淸시기 작품 수 계산상의 문제점을 밝혔다. 여기서 작품 수 계산상의 문제점이란, 明·淸시기 사람들이 소식 ‘화도시’ 가운데 四言詩 4篇(혹은 4題) 20章을 20首로 계산하는 것이 적절치 않음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篇’의 경우 ‘首’와 통용될 수 있지만 ‘章’은 ‘首’와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판단의 유력한 근거로 삼았다.<sup>2)</sup>

그러나 이러한 판단에 의구심을 갖게 하는 증거들을 잇달아 발견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중국 고전 시가에서의 작품 수 계산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품 수 계산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고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고의 논의는 다음과 같이 진행될 것이다. 우선 고전시가 작품 단위의 사용과 작품 수 계산의 복잡한 양상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중국시가 작품 단위에 대한 역사적·문헌적 고찰을 바탕으로 시가 작품 단위의 합리적인 사용과 정확한 작품 수 계산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비단 중국시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漢詩에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漢詩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됨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www.kci.go.kr

2) 拙稿, <蘇軾‘和陶詩’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18-25쪽.

## 2. 시가 작품 수 계산에 있어서의 혼선 양상

清나라 王文誥는 《蘇文忠公詩編注集成》을 통해서 소식 ‘화도시’가 총 124首이며, 蘇軾의 <東坡先生和陶淵明詩引>이 작성된 紹聖4년(1097) 12월 19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109首의 작품이 창작되었고 그 이후에 15首의 작품이 창작되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렇게 시가 작품의 編年과 결합시킨 작품 수 계산은 편년 상의 착오가 발견되면서 설득력을 어느 정도 상실했지만<sup>3)</sup> 여전히 많은 이들에 의해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이 124首라는 숫자는 논란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명대 후기 이후부터 중국인들은 ‘화도시’ 숫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이전 시기 사람들과 사뭇 다른 기준을 적용하였다. 다시 말해 소식 ‘화도시’ 가운데 四言으로 된 4개 제목의 작품<sup>4)</sup>을 이전 시기 사람들은 그냥 4篇 혹은 4首로 파악한 반면, 명대 후기 이후의 사람들은 각 제목 아래 매 章을 모두 작품 수로 환산하여 20首로 파악함으로써 16首의 차이를 발생시켰다. 이렇게 ‘章’을 ‘首’로 파악하며 작품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 중국학자 顧易生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였다.

唐·宋 이래로 자주 쓰이게 된 ‘首’자는 그 이전에 자주 사용되던 ‘篇’자와 용법에 있어서 같아 서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러나 ‘篇’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으면서 ‘篇’에 종속된 ‘章’의 경우엔 ‘首’자로 바꿔 쓸 수 없다.<sup>5)</sup>

3) 宋刊 《東坡先生和陶淵明詩》 권4에는 소식의 <和陶西田穫早稻>, <和陶下潁田舍穫>, <和陶戴主簿>, <和陶酬劉柴桑>, <和陶和胡西曹示顧賊曹> 5편이 나란히 실려 있다. 첫 번째 작품 <和陶西田穫早稻>의 소리에 “小圃栽植漸成, 取淵明詩有及草木蔬穀者五篇, 次其韻”이라는 기록이 보이고, 위 5편이 화답한 도연명의 원시가 모두 ‘草木蔬穀’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5편은 같은 시기에 창작된 것이 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王文誥는 이 가운데 <和陶酬劉柴桑>, <和陶和胡西曹示顧賊曹> 2편을 紹聖3년의 작품으로 나머지 3편을 元符元年的 작품으로 따로 繫年하였다. (孔凡禮, <《蘇軾詩集》編次訂誤>, 《孔凡禮古典文學論集》, 北京: 學苑出版社, 1999, 206-207쪽 참조)

4) 이 4題 가운데 <和陶時運>과 <和陶停雲>은 각각 4章으로, <和陶勸農>과 <和陶答龐參軍>은 각각 6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의 근거들을 바탕으로 필자는 '拙稿'에서 소식의 四言體 '화도시'는 모두 4首이고, 여기에 <和陶歸去來兮辭> 1편을 추가하여 소식의 '화도시' 숫자가 모두 109수임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章'의 경우에도 작품 수에 포함시킬 수 있고 '首'자와도 충분히 통용될 수 있는 예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顧易生의 주장을 원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생겼다.

우선 南宋 洪邁의 《容齋三筆》 권3 '東坡和陶詩'條에서는 "陶之首章云: '榮榮窓下蘭, 密密堂前柳'"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陶之首章"은 바로 도연명의 <擬古九首> 가운데 첫 번째 작품을 가리킨다. 이는 '章'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는 '首'의 의미로 쓰인 예이다.

다음으로 蘇軾은 嘉祐 4년(1059년, 24세)에 지은 <竹枝歌>의 引文<sup>6)</sup>에서 이 작품이 "一篇九章"이라고 밝혔다. 이 작품은 唐나라 劉禹錫의 <竹枝詞>의 예에 따라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우석은 일찍이 작품의 序文에서 "나도 <竹枝>詞 9篇을 지어 노래 잘 부르는 이로 하여금 이것을 드높여 끝에 붙이게 하였다"<sup>7)</sup>라고 하였다. 유우석과 소식의 작품은 모두 옛 楚나라 민요를 창작하여 지었고 작품의 규모도 7言4句 9개로 같다. 그렇다면 표면적으로 '九篇'과 '一篇九章'으로 각기 달리 표현되었을지라도, 실제로는 모두 9首로 파악될 수 있지 않을까?<sup>8)</sup> 이렇게 본다면 篇이나 章 그리고 首는 顧易生의 주장처럼 그렇게 엄격한 구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환경에 따라서 다소 자유롭게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면모를 우리는 다음의 黃庭堅의 말에서도 엿볼 수 있다.

5) [宋]蘇軾 著, [清]馮應榴 輯注, 黃任軻·朱懷春 校點, 《蘇軾詩集合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前言' 32쪽.

6) 蘇軾과 蘇轍은 조부의 諱를 피하여 序를 모두 引이라고 하였다.

7) "余亦作<竹枝詞>九篇, 俾善歌者颺之, 附于末." ([唐]劉禹錫 著, 瞿蛻園 箋證, 《劉禹錫集箋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852쪽)

8) 실제로 일부 소식 연구자들은 <竹枝歌>9章을 9首로 보기도 한다. 예를 들면, 饒曉明은 소식의 <竹枝歌>를 詞集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작품 수를 '9首'라고 하였다. (饒曉明, 《東坡詞研究新思維》,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71쪽)

劉夢得(‘夢得’은 유우석의 字)의 <竹枝>九章은 가사의 뜻이 높고 오묘하여, 元和시기에 진실로 독보적이었다 할 수 있다. (중략) 지난 날 子瞻(소식의 字)선생께서는 일찍이 내가 第一篇을 읊는 것을 듣고 탄식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는 발에 먼지가 묻지 않을 정도로 빨리 달리는 것으로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것이다.”<sup>9)</sup>

이 글에서 황정건은 유우석의 <竹枝>9篇을 9章이라고 하였고 그 첫 번째 작품을 ‘第一篇’이라고 함으로써, 章과 篇을 혼용하여 쓰고 있음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이와 같이 篇과 章이 혼용되는 경우는 《詩經》과 함께 중국문학의 첫 장을 장식했던 ‘楚辭’에서도 찾을 수 있다. 《漢書·藝文志》에는 “屈原賦二十五篇”이라는 기록이 보이는데<sup>10)</sup>, 《楚辭章句》에 수록된 굴원의 작품은 <離騷>·<九歌>(11篇)·<天問>·<九章>(9篇)·<遠遊>·<卜居>·<漁父> 이상 7題로 그 총합은 정확히 25편이다. 여기서 <九歌>와 <九章>의 ‘九’자가 實數인지 단순히 많다는 뜻을 나타내는 虛數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sup>11)</sup>, 일반적으로는 작품의 숫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九章>의 ‘章’은 王逸의 해석처럼 ‘著’나 ‘明’과 통하여 자신이 진술하는 忠信의 道가 매우 뚜렷하고 밝게 드러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sup>12)</sup>, 작품 단위의 ‘章’으로 보는 것도 여전히 가능하다.<sup>13)</sup> 설령 王逸의 설이

9) “劉夢得<竹枝>九章, 詞意高妙, 元和間誠可以獨步. ……昔子瞻聞余詠第一篇, 歎曰: ‘此奔逸絕塵, 不可追也.’” ([宋]魏慶之 著, 王仲聞 點校, 《詩人玉屑》권15, 北京: 中華書局, 2007, 468쪽)

10) [漢]班固 撰, [唐]顏師古 注, 《漢書》권30, 北京: 中華書局, 1997, 1747쪽.

11) 이와 같은 논란이 일어난 것은 <九歌>가 모두 11篇이기 때문이다. 과거 <九歌>의 ‘九’를 實數로 보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湘君>·<湘夫人>과 <大司命>·<小司命>을 각각 하나의 歌로 보는 것이다. 이 밖에도 마지막 3편인 <山鬼>·<國殤>·<禮魂>을 하나로 보는 설, <國殤>·<禮魂>을 亂辭로 보거나 이 2편을 <九歌>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는 설, 제1篇인 <東皇太一>을 迎神曲으로 <禮魂>을 送神曲으로 보아 그 가운데 9편이 ‘九歌’가 된다는 설 등이 있다. (周草風, <論《楚辭》的篇次>,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3년 1월, 33-34쪽 참조)

12) “章者, 著也, 明也. 言己所陳忠信之道, 甚著明也.” ([宋]洪興祖 撰, 白化文 等 點校,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2002, 121쪽)

13) 朱熹《楚辭集注》: “(<九章>)後人輯之, 得其九章, 合爲一卷, 非必出於一時之言也.” ([宋]朱熹 撰, 蔣立甫 點校, 《楚辭集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72쪽)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宋 洪興祖의 《楚辭補注》에 수록된 <九章> 각 작품의 題下註에는 ‘이 章은(此章)’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이므로, <九章> 각 작품은 일찍이 ‘章’으로 파악이 되었고 작품 수 계산에 있어서 한 篇으로 계산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篇과 章이 비교적 자유롭게 호환되고, 거기에 따라 章을 주로 바꿔 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를 경우 明·淸시기 사람들처럼 소식 ‘화도시’ 가운데 四言詩 4題 20章을 20首로 파악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다만 이와 같이 시가 작품 단위 사이의 관계가 상호간에 모호해짐으로써 작품 수 계산에 있어서 다소 복잡한 양상이 필연적으로 생겨난다. 문제는 계산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실상은 규모가 같은데 계산하는 이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 수를 내놓음으로써 혼선을 빚거나, 혹은 작가 간 서책 간 작품 수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작품 수가 더 많음에도 계산법을 서로 달리하여 오히려 더 적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다는 데 있다. 아래에서는 중국과 우리나라의 ‘화도시’ 숫자 계산을 실례로 이런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우선 소식의 ‘화도시’는 위에서의 논의에 따른다면 109首(혹은 108首<sup>14</sup>)로 볼 수도 있고 124首로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화도시’의 唱和 대상인 도연명 시는 도합 몇 首일까? 袁行霈의 《陶淵明集箋注》에 따르면 도연명은 총 126首의 시를 남겼다.<sup>15</sup> 이 책은 毛氏 汲古閣所藏 宋刻《陶淵明集》10권本을 저본으로 한 것인데, 제1권에 9首의 四言詩를 수록하면서 각 작품의 하위 章을 작품 수 계산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이런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작품을 비교하지 않고 타인이 내놓은 통계숫자에 의지할 경우, 124와 126은 근접한 수치이므로 소식이 도연명시 거의 전부에 화답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화도시’를 처음 창작한 소식의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대 ‘화도시’ 계산에 있어 보편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

14) <和陶歸去來兮辭>를 제외한 경우임.

15) 권1에서 권4까지 125首의 작품을 수록하였고, 권6에 <桃花源記并詩>1首를 수록하였다.

관련된 예를 좀 더 들어본다.

소식은 일찍이 도연명시 전체에 화답하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를 실현하지 못하였다. 중국문학사상 이 ‘盡和陶詩’의 목표를 가장 철저히 달성한 이는 바로 明 萬曆시기 문인 周履靖이다. 그의 《五柳賡歌》 4권은 바로 도연명의 문학작품에 대한 次韻 화답을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권1에서 권3까지 총 162首의 ‘화도시’를 수록하였고, 권4에는 도연명의 <歸去來兮辭>, <閑情賦>, <感士不遇賦>, <陶和源詩>에 대해 차운한 작품을 수록하였다.<sup>16)</sup> 그런데 이 162首의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것일까? 우선 외견상 주리정이 도연명의 한 작품에 대해서 여러 차례 차운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주리정은 도연명시에 대해서 1:1의 비율로 차운 화답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작품 수가 늘어난 이유는 바로 그가 四言詩 9題 44章을 9首로 파악하지 않고 44首로 파악하였고, 여기에 <和陶歸園田居> 其六<sup>17)</sup>과 <問來使> 1首<sup>18)</sup>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126 + 35 + 2 - <桃花源詩> > 1 = 162)$  결국 작품 수 계산법을 달리한 것 때문에, 주리정이 창작한 ‘화도시’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함에 있어 얼마간의 혼선을 빚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화도시’ 가운데 이와 관련된 예를 소개해 본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문인들은 비교적 많은 ‘화도시’를 지었다. 그 가운데 梅月堂 金時習은 가장 먼저 다량의 작품을 남겨 ‘화도시’ 창작의 유행을 선도하였다. 그런데 그가 남긴 작품 수에 대해서 현재 얼마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金潤惠는 <梅月堂의 ‘和陶詩’에 대한 研究>에서 김시습이 남긴 작품이 23題 66首라고 주장하며 그 구체적인 편목을 제시하였다.<sup>19)</sup> 이와는 달리 중국학자

16) 이밖에도 권4에는 <和五柳先生傳并贊> 1篇이 실려 있는데, 이 작품은 매 구의 末字를 도연명의 <五柳先生傳>의 그것에 일치시켜 산문 창작에서 시가의 次韻과 비슷한 기법을 활용한 것으로 ‘文字遊戲’의 성격이 농후하다.

17) 이 작품의 原詩는 사실 도연명의 작품이 아니라 南朝 江淹의 <擬陶徵君潛田居> 詩이다. 현존하는 宋刻 《陶淵明集》 10권본을 통해 볼 때, 송대에 간행된 도연명의 시집에서 이 작품을 잘못 수록한 듯하다. 이에 따라 소식을 비롯한 많은 후대 문인들이 이 시를 도연명의 것으로 잘못 알고 차운하였다.

18) 이 작품은 宋刻 《陶淵明集》 10권본에 수록되어 있지만, 도연명의 작품이 아니라 晚唐人의 위작일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袁行霈는 이 작품을 ‘外集’에 수록하였다.

吳紹鈞·陳彩娟은 <論朝鮮詩人金時習的和陶詩>에서 매월당 '화도시'의 작품 총수가 52首라고 보았다.<sup>20)</sup> 그러나 사실 이 두 연구의 통계숫자는 어떠한 계산법을 적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모두 오류이다. 우선 김윤혜의 경우 김시습의 <和移居> 2首를 빠트렸다. 이를 포함시킬 경우 총 68首가 되는데, 四言詩 4題 20章의 숫자를 20首로 계산한 것을 고려하여 16을 빼면 정확히 吳紹鈞·陳彩娟의 통계숫자가 나온다. 문제는 《梅月堂集》을 편찬한 이의 실수로 <歲晚, 居城東瀑布之頂, 靑松白石, 甚愜余意, 和靖節歸園田詩>의 其四과 其五가 하나의 작품으로 잘못 합쳐졌는데, 위 두 연구에서는 모두 이러한 잘못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데에 있다. 이를 반영할 경우 두 연구의 통계숫자는 각각 69수와 53수가 된다. 이처럼 매월당 김시습의 '화도시' 총수는 원본 편자의 실수와 오늘날 연구자의 실수, 그리고 연구자 각각의 계산법의 차이로 현재 매우 어지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조선 중기 '四大文章家' 가운데 한 명인 象村 申欽은 일찍이 100首가 넘는 '화도시'를 창작한 바가 있는데, 현재 그 정확한 수치에 대해서 얼마간의 논란이 있다. 일단 그가 스스로 쓴 서문의 한 대목을 보자.

나는 조정에 죄를 지어 쫓겨나자마자 밭으로 돌아왔고, 다시 쫓겨나 궁핍한 골짜기에 얽매어 살게 되었으니, 세상에 대해서는 이미 불필요한 군더더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왕 할 일도 없어 간혹 책을 가져다 읽었는데 마치 꿈결만 같아 이미 다시 그만두었다. 하루는 蘇長公의 '和陶詩'를 보았는데, 마음속에 깊이 와 닿는 바가 있었으니, 대개 蘇翁이 惠州와 儋州에서 곤궁에 처한 것이 마치 나와 비슷하였다. 그런데 陶翁의 고결하고 맑은 절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가 경모하는 것이 또한 蘇翁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까닭으로 그가 화답한 것을 계승하여 陶淵明詩에 화답을 하였으니 무릇 102首이다.<sup>21)</sup>

19) 金潤惠, <梅月堂의 '和陶詩'에 대한 研究>, 《漢文教育研究》 제4집, 1990, 171-172쪽.

20) 吳紹鈞·陳彩娟, <論朝鮮詩人金時習的和陶詩>,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8年第2期, 97쪽.

21) "余獲戾于朝, 一逐而歸于田, 再逐而繫于窮峽, 於世已贅疣矣. 旣無所事事, 間取簡策閱之, 如夢境已復置之. 一日, 見蘇長公和陶詩, 深有契於衷, 蓋蘇翁之偃蹇折困于惠于儋, 髣髴於余, 而乃若陶翁之高標清節, 余之景慕又不啻蘇翁. 茲故踵其和而繼和之, 凡一百二首." (《象村稿》 권56, 《韓國文集叢刊》本)

신흠은 광해군 5년(1613) '癸丑獄事'에 연루되어 김포와 춘천 소양강가로 누차 폄적을 당했다. 이는 소식이 말년에 惠州와 儋州로 쫓겨난 것과 유사한 점이 있었다. 아울러 신흠은 소식과 마찬가지로 도연명을 매우 존경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소식의 예를 쫓아 '화도시'를 짓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그는 자신이 지은 작품 수에 대해서 "凡一百二首"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이 <和陶詩序>가 실린 《象村稿》권56에는 '和陶詩' 102首와 '和陶辭' 1首가 실려 있다. 그런데 金周伯은 <象村 申欽의 '和陶詩' 研究>에서 작품 총수를 41題 120首로 파악하였다. 그는 우선 四言詩 4題 20章을 20首로 파악하였다. 이 경우 '和陶詩'의 총수는 118首가 되어 서문의 102라는 숫자와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그는 '和陶辭' 1首를 포함시키고 여기에 도연명의 原詩가 원래 7首인 <貧士>詩에 和詩가 6수뿐이라는 사실에 입각하여 1首가 "누락된 듯하다"고 보면서, 신흠 '화도시'의 총수는 120首이며 "凡一百二首"는 "판각할 때 착오인 듯하다"고 보았다.<sup>22)</sup> 그러나 추론에 추론을 거듭한 이와 같은 판단은, 실제 수록된 시 작품 수가 정확히 서문에서의 숫자와 일치하는 것을 뒤집기에는 확실히 역부족이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상술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시가 작품 수를 세는 단위인 '篇', '章', '首'를 서로 호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역대 '화도시' 작품 수 계산의 예를 통해서, 이렇게 호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는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만약 전통시기 중국인들이 작품 단위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규칙을 보여준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적어도 한 작가나 하나의 책 혹은 하나의 창작현상(예컨대 '화도시')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작가의 시가 작품 수를 세는 데 있어서 앞과 뒤의 기준이 각각 다르다면 이는 결코

22) 金周伯, <象村 申欽의 '和陶詩' 研究>, 《漢文學論集》 제10집, 1992, 124-125쪽.

학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서 마땅히 지양되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다음 장에서는 우선 시가 작품 단위의 사용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진행하여 이른 바 ‘일정한 규칙’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에 근거하여 소식의 <竹枝歌> 9章과 역대 ‘화도시’를 중심으로 작품 수 계산에 있어서의 보다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 필자의 管見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시가 작품 단위에 대한 역사적 고찰과 합리적 계산 방안

시가 작품 수에 대해 고찰함에 있어서, 그리고 작품 단위에 대해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는 《詩經》을 다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다. 《詩經》의 현존 작품 수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이미 305篇임을 밝힌 바 있다. 이는 司馬遷이 《史記·孔子世家》에서 孔子의 이른바 ‘刪詩說’과 관련하여 언급한 305篇의 숫자<sup>23)</sup>와 정확히 일치한다. 따라서 《詩經》의 작품 수는 일찍이 확정이 되어 異論의 여지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간혹 ‘篇’을 ‘首’로 바꾸어 305首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sup>24)</sup>, 적어도 숫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詩經》의 각 篇이야말로 그 어느 시기 어느 시인의 시보다도 두드러지게 복수의 章으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다. 비교적 잘 알려진 작품을 예로 들면, <關雎>는 총 5章으로 이루어져 있고, <鹿鳴>은 3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文王>은 7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詩經》 각 篇의 각 章을 모두 작품 수로 환산을 한다면 《詩經》의 작품 수는 엄청나게 늘어날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詩經》 작품 수의 계산에서 매 章을 篇이나 首로 환산하는 경우는 없다. 이는 과거부터 ‘詩三百’이라 불려온 전통의 힘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각 章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실제로 하나

23) “古者詩三千餘篇，及至孔子，去其重，取可施於禮義，……三百五篇孔子皆弦歌之，以求合韶武雅頌之音。”（漢）司馬遷撰，〔劉宋〕裴駟集解，《史記》卷47，北京：中華書局，1997，491쪽）

24) 예를 들어 周振甫는 《詩經譯注》의 ‘引言’에서 “三百零五首”라고 말하였다.

의 작품을 이룬다는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특히 《詩經》에 수록된 작품의 각 章에는 이른바 ‘疊詠體’가 많이 구현되어 있는데, 이를 일일이 따로 떼어내어 각각 한 篇 혹은 한 首로 계산한다면, 이는 마치 오늘날 유행가의 각 절을 따로 떼어 내어 각각 한 곡으로 계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그렇다면 楚辭의 경우엔 어떠할까? 앞에서 우리는 楚辭 가운데 屈原의 <九章>이 9개의 章으로 파악되었고 또한 9篇으로도 계산되는 경우를 살펴본 바 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작품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九章>에 속한 하위 제목은 차례로 <惜誦>, <涉江>, <哀郢>, <抽思>, <懷沙>, <思美人>, <惜往日>, <橘頌>, <悲回風>이다. 이들은 비록 ‘九章’이라는 하나의 제목 아래에 묶여 있지만, 朱熹가 말한 것처럼 동시에 창작된 것이 아니라 아홉 개의 작품(章)을 後人이 하나로 모은 듯하며, 편목이나 내용면에서도 각기 한 편의 독립된 작품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는 《詩經》의 각 章들이 하나의 작품(篇)에 종속된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sup>25)</sup> 특히 매 篇 혹은 매 章에 별도의 제목이 붙어 있는 것 역시 이들이 상대적으로 각기 독립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詩經》과 楚辭의 작품 수 계산에 있어서, 같은 글자인 ‘章’이 가리키는 바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漢語大詞典》에서 시가 작품 단위와 관련하여 章이라는 글자의 뜻을 찾아보면, “시가 혹은 악곡의 단락(詩歌或樂曲的段落)”이라는 풀이를 얻을 수 있다. 이는 章이 주로 한 작품의

25) 김인호에 따르면, <抽思>는 1차 방축지인 漢北에서 지은 작품이고, <哀郢>은 2차 방축지인 江南에서 지은 작품이며, <涉江>은 江南에서 다시 서쪽으로 유랑할 때에 지은 것이고, 마지막으로 <懷沙>는 汨羅水에 빠져죽기 전에 지은 작품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김인호는 이상 4편과 더불어 굴의 성덕을 찬미하며 그것으로써 자신의 충정과 淨潔性을 비유한 <橘頌>까지는 굴원의 작품으로 볼 수 있으나, 주제로 題名을 붙이지 않고 冒頭의 몇 단어로 제명을 붙인 <惜誦>, <思美人>, <惜往日>, <悲回風> 이상 4篇은 굴원의 事跡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내용 또한 오직 소외된 비분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일관하여, 굴원의 작품이 아니라 굴원의 추종자들이 그의 대표작인 <離騷>를 그대로 모방하여 지은 작품으로 추정하였다. (김인호, <楚辭 九章의 巫歌性 고찰>, 《인문연구논집》 제4집, 1992, 131-156쪽)

‘단락’이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의미로, 실상 《詩經》 각 篇의 章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韓語大詞典》에는 다시 “문장의 단 혹은 篇을 가리킨다(指文章的段或篇)”는 풀이가 바로 뒤따른다. 여기서는 단지 廣의 文章만을 언급했지만, 詩歌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풀이는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九章>의 각 章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 이처럼 시가 작품 단위인 章은 용법상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즉 ① 篇에 종속된 단락의 의미로 쓰인 章과 ② 篇에 종속되지 않고 篇 혹은 首와 통용될 수 있는 章으로 구분이 가능하다.<sup>26)</sup> ②의 경우 하나의 큰 제목 아래에 묶이거나 각 章간에 작품 창작에 있어서의 공통분모(예컨대 시간, 장소, 作詩 상황 등)가 대체로 존재한다.

宋代 이전 작품<sup>27)</sup>에서 ①의 의미로 쓰인 章의 경우엔 《詩經》의 예가 대표적이면서도 충분한 사례가 될 수 있다. ②의 의미로 사용된 章의 예는 楚辭 이외에도 다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우선 《樂府詩集》 권7 “郊廟歌辭七”에는 <唐享龍池樂章> 10首가 수록되어 있는데, 각 작품의 앞에 ‘第一章’, ‘第二章’, …… , ‘第十章’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다. 공통적으로 7言 8句의 歌辭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10章은 한 사람의 창작이 아니고, 姚崇, 蔡孚, 沈佺期, 盧懷慎, 姜皎, 崔日用, 蘇頲, 李乂, 姜晞, 裴曜 이상 10인이 각기 한 首씩을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白居易의 <禽蟲十二章>은 일반적으로 1篇 혹은 1首로 계산하지 않고 12首로 계산한다.<sup>28)</sup> 그러나 이상의 예들은 傳本이 모두 송대 이후의 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章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는지가 직접 언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얼마간의 한계가 있다. 거기에 비하면 다음에 인용하는 백거이의 글은 唐代 사람들이 작품 단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26) 이하 ①과 ②는 각각 ‘篇에 종속된 단락’과 ‘篇에 종속되지 않고 篇 혹은 首와 통용되는 것’의 뜻으로 줄여서 말하는 것임.

27) 2장에서 살펴본 소식시와 ‘화도시’ 작품 수 계산상의 혼선을 염두에 두고 그 이전시기 작품 단위의 용례를 고찰하려는 의도에서 이렇게 표현하였다.

28) 中華書局版 《白居易集》과 上海古籍出版社版 《白居易集箋校》에 따르면 권37의 작품 총수는 “凡五十六首”이다. 이는 <禽蟲十二章>를 12首로 파악해야만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微之(元稹의 字)가 또 최근에 지은 43首를 보내와서 나에게 이어서 화답할 것을 명하였다. 그 가운데 瘀·絮 운을 사용한 40자 詩와 車·斜 운을 사용한 20篇과 같은 것들은, 모두 잘 쓰지 않는 險韻을 사용하였고 온갖 文辭를 다 동원하여 매우 진기하면서도 괴상망측하다. (중략) 무릇 순서대로 운자를 쓰는데 운자는 같지만 뜻은 다르고, 문체를 간략하게 하며 글을 쓰는데 글이 잘 이루어지고 이치 또한 빼어나다. 이는 그대가 평소 뛰어난 바이니, 내게 어찌 그런 재주가 있겠는가? 지금 그대는 과연 자신이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내 어리석음을 닮으며 나를 궁지에 빠트리고 있다. 그러나 대적을 하다 보니 기가 일어나고 급해지니 계획이 생겨나, 42章을 휘갈겨 써내니, 大敵인 그대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sup>29)</sup>

《白居易集》에는 이 서문 뒤에 23首의 작품이 나열되어 있다. 이는 서문에 기록된 작품 수와 다소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 다시 말해 元稹의 43首에 화답하여 42章을 썼다고 했는데 실제로 수록된 작품은 23首에 불과하다. 이 작품군의 작품 수에 대해서 朱金城은 일부에서 제기된 誤脫字의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서문 가운데 “車·斜 운을 사용한 20篇”이라고 언급한 것이 《白居易集》 권26에 수록된 <和春深二十首>라고 보았다.<sup>30)</sup> 이에 따를 경우 23首에 20首가 더해져 백거이가 화답한 작품은 정확히 元稹이 지어 보낸 43首와 일치한다. 42章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朱金城은 위 서문보다 일찍 지어진 <因繼集重序>(《白居易集》 권69)에서 “<和晨興> 1章은 다른 종이에 기록하였다”라고 한 것을 근거로, 현재 소위 23首에 포함된 <和晨興因報問龜兒> 1首는 다른 시들보다 먼저 지어져 元稹에게 이미 보내졌고 나머지 42章이 뒤에 지어진 것이라고 보았다.<sup>31)</sup> 이러한 고찰은 매우 설득력을 갖추어 이에 따를 경우 백

29) 白居易 <和微之詩二十三首序>: “微之又以近作四十三首寄來, 命僕繼和. 其間筋絮四百字, 車斜二十篇者流, 皆韻劇辭殫, 瓌奇怪譎. …… 大凡依次用韻, 韻同而意殊, 約體爲文, 文成而理勝. 此足下素所長者, 仆何有焉? 大凡依次用韻, 韻同而意殊, 約體爲文, 文成而理勝. 此足下素所長者, 僕何有焉? 今足下果用所長, 過蒙見寤, 然敵則氣作, 急則計生, 四十二章麾掃並畢, 不知大敵以爲如何?”(唐)白居易 著, 朱金城 箋校, 《白居易集箋校》권2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1463쪽)

30) 이에 대한 근거로 朱金城은 劉禹錫 <同樂天和微之春心二十首>의 제목 아래 自注에 “同用家·花·車·斜四韻”이라는 기록이 있음을 들었다. 白居易의 <和春心二十首>는 바로 家·花·車·斜 4가지 운을 사용하고 있는데 劉禹錫의 詩題를 통해서 元稹의 작품에 次韻和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1) 朱金城, 《白居易集箋校》, 1465쪽.

거기가 서문에서 사용한 首·篇·章은 모두 서로 통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설령 朱金城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더라도 이 서문에 쓰인 章이 首 혹은 篇과 지시하는 바가 다르다고 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sup>32)</sup> 요컨대 우리는 白居易 <和微之詩二十三首序>를 통해서 篇에 종속된 경우가 아니라면 章이 篇 혹은 首와 비교적 자유롭게 통용되었음을, 다시 말해 본고의 ②의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 2장에서 언급한 바 있는 시편들의 작품 수 계산 문제를 다시 다루어보도록 하자.

앞 장에서 예로 든 洪邁《容齋三筆》 권3 ‘東坡和陶詩’조에서 “陶之首章”은 운한 것과 황정건이 유우석의 <竹枝>에 대해서 章과 篇을 혼용한 것은 바로 장이 ②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식 <竹枝歌>의 각 章도 ②의 의미로 사용되었을까?

우선 살펴볼 것은 서문에 보이는 “一篇九章”의 기록이다. 이는 소식 <竹枝歌>의 각 章이 ②의 의미가 아니라 ①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유우석의 <죽지>와는 달리 소식은 이 작품을 한 篇 속에 여러 장이 있는 작품으로 창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유우석의 9篇 혹은 9장이 民歌風으로 9개의 각기 서로 다른 주제를 읊은 것에 반해, 소식의 작품은 1-8장에서 楚지방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차례로 읊고 마지막 9장에서 ‘人生無常’의 주제의식을 드러냄으로써 각 章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작품으로 볼 수 있다.<sup>33)</sup>

그러나 작품의 내용만을 바탕으로, 하나의 작품(篇) 아래의 章인지 아니면 창작상의 공통분모가 존재하지만 각기 독립된 章인지를 판단하기가 늘 그렇게 용이한 것은 아니다. 사실 유우석의 작품 역시 蜀 땅이라는 공통된 작시 배경을 가지기 때문에 각 작품 간에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결국 판단의

32) 혹자는 23篇 42章의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도 있겠다. 그러나 실제 수록된 작품을 보면 23篇이 42章으로 다시 나누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33) 유우석의 각 篇(혹은 각 章)과 소식의 각 章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록 <표1> 유우석 <竹枝詞>와 소식 <竹枝歌> 내용 비교를 참고하기 바람.

기준이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내용만 가지고 선불리 소식 <竹枝歌>의 후이 ①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속단해서는 곤란하고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역대 소식시 판본들에서 <竹枝歌>를 어떻게 수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식의 <竹枝歌>는 원래 三蘇가 合編한 《南行集》에 수록되었다. 이 《南行集》은 아쉽게도 현전하는 판본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수록된 시들은 宋版 《東坡前·後集》에도 수록되지 않았다. 현전하는 宋元시기 판본 가운데 ‘南行詩’를 수록한 책으로는 《王狀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25권을 들 수 있다. 이 책에서 <竹枝歌>는 권24 ‘歌’類 10首 가운데 마지막 1首로 실려 있다. 그 후 출간된 책들의 경우도 모두 이와 같은데, 대표적인 예로 明版 《東坡續集》권3 ‘歌詞一十九首’와 清 邵長蘅 刪補本 《施注蘇詩》‘續補遺’ 卷上 ‘古體詩一百四十四首’에서는 <竹枝歌>가 모두 1首로 파악되고 있다.<sup>34)</sup> 아울러 오늘날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上海古籍版 《蘇軾詩集合注》와 中華書局版 《蘇軾詩集》에서도 모두 <竹枝歌>를 1首로 계산하고 있다.<sup>35)</sup>

이처럼 역대 판본들의 작품 수록 상황을 통해서 살펴볼 때, 소식의 <竹枝歌> 9章은 줄곧 1首로 파악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내용상의 유기적인 결합이 각 판본의 편자들에게 인식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겠고, 이 밖에 시인 자신이 “一篇九章”이라고 분명히 말한 사실이 비교적 큰 작용을 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즉 시인이 작품을 창작할 때 하나의 작품(篇)으로 인식하였고 그것을 서문에 분명히 밝힌 것이 이후에도 계속 계

34) 《東坡續集》은 明版 ‘東坡七集’의 하나로 명대 이후의 소식시 판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점에서, 《施注蘇詩》는 淸代 編年注本의 유행을 선도한 점에서 예로 들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참조한 《王狀元集百家注分類東坡先生詩》25권, 《東坡續集》, 《施注蘇詩》는 각각 《四部叢刊》本, 《四部備要》本, 《文淵閣四庫全書》本임을 밝힌다.

35) 上海古籍版 《蘇軾詩集合注》는 淸 馮應榴의 《蘇文忠詩合注》를 저본으로 하였고, 中華書局版 孔凡禮 點校本 《蘇軾詩集》은 王文誥의 《蘇文忠公詩編注集成》을 저본으로 하였다. 두 책에서 <竹枝歌>를 1首로 계산했음은 각각의 권1에 “古今體詩四十二首”와 “古今體詩四十首”라는 문구가 보이기 때문인데, 이는 <竹枝歌>를 1首로 보아야만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승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sup>36)</sup>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소식 <竹枝歌> 9章의 章은 ②의 의미보다는 ①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화도시’ 가운데 四言詩 각 章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까?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四言體 ‘화도시’의 각 章 역시 ①의 의미로 파악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해볼 점은 바로 모든 ‘화도시’의 원작인 도연명시에서 四言詩 각 작품이 어떻게 계산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위에서는 袁行霈의 《陶淵明集箋注》만을 예로 들었지만, 명대 후기 이후 일부 ‘화도시’ 판본들에서 陶詩를 함께 수록하며 간혹 四言詩의 각 章을 ②의 의미로 파악한 것을 제외하면<sup>37)</sup>, 四言詩 9題 44章은 일반적으로 44篇 혹은 44首로 계산되지 않는다.<sup>38)</sup> 원작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화답시의 각 章을 따로 한 작품으로 보는 것은 모순이다.

다음으로 宋版 ‘東坡六集(혹은 七集)’ 가운데 하나인 《東坡先生和陶淵明詩》 4권본과 南宋 施元之·顧禧가 合編한 《注東坡先生詩》와 같은 송대 蘇詩版本

36) 한편 소식의 서문에는 동생 소철의 <竹枝歌>에 대한 언급이 있다. 소철의 문집을 통해서 해당 작품을 살펴보면, 分章이 되어 있지 않고 총 8번 換韻한 1首의 작품처럼 수록되어 있다. 결국 소철의 작품도 그의 형의 것과 마찬가지로 ‘一篇九章인 셈이다.

37) 명 주이정의 《五柳廬歌》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38) 예컨대 楊勇의 《陶淵明集校箋》과 王叔岷의 《陶淵明詩箋證稿》 등의 책에서 四言詩의 각 章을 작품 수로 환산하지 않았다. 그리고 袁行霈가 저본으로 삼은 宋刻本을 제외한 古籍의 경우를 살펴보면, 宋 湯漢의 《陶靖節先生詩注》 4권본은 四言詩 각 題를 ‘一首로 명기하고 分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元 李公煥의 《箋注陶淵明集》 10권본은 비록 ‘一首’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지만, 여타 작품이 2首 이상일 때 반드시 그 작품 수를 명기한 것을 통해 볼 때, 역시 四言詩 각 題를 1首로 파악했음을 알 수 있다. 明清시기 판본으로 淸 陶澍의 《靖節先生集》 10권본은 四言詩의 각 題名 아래에 따로 ‘○首’라는 기록이 없고, 기존 판본들의 작품 수 기록에 대한 간단한 언급만 있는 것으로 보아, 宋元시기 판본과 작품 수를 다른 방식으로 계산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宋 劉克莊은 《後村詩話》 前集 권1에서 “詩四言尤難, 以三百五篇在前故也”라고 하면서 四言詩가 《詩經》의 전통을 잇는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古直은 “陶公四言篇題及序, 其體皆仿毛詩”라고 하면서 도연명의 四言詩가 《毛詩》의 체례를 모방하였다고 보았다. ([晉]陶潛 著, 楊勇 校箋, 《陶淵明集校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4쪽 참조) 이처럼 도연명의 四言詩는 《詩經》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 작품의 하위 章을 篇이나 首로 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에서 소식의 四言體 ‘화도시’ 4題 20章을 모두 4首로 볼 뿐 20首로 보지 않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東坡先生和陶淵明詩》 4권본에서는 동일 詩題 아래에 여러 수의 작품이 있으면 반드시 “○首”라고 표시하였는데, 四言詩 4題의 경우엔 그런 표시가 없다. 《注東坡先生詩》는 권41과 권42에 ‘화도시’를 전적으로 수록하고 있다. 권41의 첫머리에는 “五十四首”라는 문구가 권42에는 “五十三首”라는 문구가 있는데, 四言詩 4題 20章을 4首로 계산해야만 나올 수 있는 수치이다. 이들 송대 판본의 ‘화도시’ 수록 상황은 소식과 동시대 혹은 조금 후대 사람들의 작품 수 계산법이 반영된 것으로서, 명대 후기 이후에 20章을 20首로 계산한 것보다 훨씬 신뢰할 만하다고 하겠다. 더욱이 宋刊 《東坡先生和陶淵明詩》 4권은 소철이 1년 전(1101)에 세상을 떠난 형을 위해 지은 <亡兄子瞻端明墓誌銘>에서 “公의 시는 본래 李白·杜甫와 비슷하였으나, 만년에는 도연명을 좋아하여 그의 시 거의 대부분에 追和했는데 모두 4권이 다”<sup>39)</sup>라고 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판본으로, 소식이 생전에 편찬을 목적으로 ‘화도시’를 정리한 면모가 틀림없이 반영되어 있을 것인 바<sup>40)</sup>, 소식 스스로 四言詩 4題 20章을 4篇 혹은 4首로 파악했을 것임을 이로부터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겠다. 이처럼 도연명의 원작을 뒤이어 ‘和陶’의 출발점인 소식의 작품에서도 四言詩의 각 章을 ②의 의미가 아닌 ①의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여타 ‘화도시’의 작품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이러한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한편 소식시에 있어서 四言體 ‘화도시’의 각 章을 ②의 의미로 파악할 경우, 한 개인의 시집에서 작품 수 계산 방법이 앞뒤 상호 모순을 일으키는 상황도 초래할 수 있다. 예컨대 초기작인 <竹枝歌> 9章이 1篇 혹은 1首로 계산되는 상황에서, 만년에 지어진 四言體 ‘화도시’의 각 章을 따로 1首씩으로 계산하는

39) “公詩本似李杜，晚喜陶淵明，追和之者幾遍，凡四卷。”([宋]蘇軾 著，陳宏天·高秀方 點校，《蘇轍集》，北京：中華書局，1999，1110쪽)

40) 曾棗莊은 ‘화도시’ 4권본을 포함한 이른바 ‘東坡六集’은 모두 소식 본인이 손수 編定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曾棗莊，〈蘇軾著述生前編刻情況考略〉，《中華文史論叢》，1984년 제4기，200-204쪽)

것은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명백한 모순이다. 더욱이 四言體 ‘화도시’의 각 章들은 각기 별개의 내용을 읊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제목 아래에서 상호간에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四言體 ‘화도시’들의 각 章들은 독립된 詩篇으로 간주될 수가 없다. <和陶時運>을 예로 들면, 紹聖4년 丁丑(1097) 2월 14일에 惠州 白鶴峰의 새 거처가 다 지어져서 그곳으로 이사하고 뒤이어 長子 蘇邁가 여러 손자들을 데리고 시인을 찾아온 일을 읊고 있는데, 큰 우환을 겪은 뒤 유배지에서 마침내 정착할 거처를 얻고 거기다가 3년 만에 가족들을 만난 기쁨의 심정을 각 章간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그 중 첫 번째 장을 들어 본다.

我卜我居,	내가 살 곳을 내가 직접 고르나니
居非一朝,	하루아침만 살 것이 아니기 때문일세.
龜不吾欺,	짐괘가 나를 속이지 않으리니
食此江郊,	마침내 이 江郊에서 먹고살게 되었네.
廢井已塞,	옛 우물은 이미 막혀 있고
喬木干霄,	큰 나무는 하늘로 치솟아 있네.
昔人伊何,	이곳에 옛날에 그 누가 살았던가?
誰其裔苗?	누가 그들의 후예란 말인가?

이 章은 시인이 白鶴峰 근처 폐허에서 자신이 살 터전을 찾던 과거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 그런데 위 8구는 하나의 작품이라 하기엔 내용적으로 다소 불완전하다. 우리는 시인이 아직까지 할 말을 다하지 않았고 위 8구가 전체 작품의 서장에 불과함을 비교적 쉽게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위 8구가 좋은 거주 환경을 가진 이곳에 살 집을 직접 지으면서 흥겨워하는 2章의 내용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sup>41)</sup> 이처럼 <和陶時運>의 각 章은 <竹枝歌> 9章의 각 章보다 상대적으로 더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

41) 이어지는 3章은 이 새로운 거처에 대단히 만족하며 여기서 길이길이 살 것을 생각하지만 다시 구름처럼 뿔뿔이 흩어진 親友 생각 때문에 외로움에 사무치는 시인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4章에서는 외로웠던 시인이 마침내 가족들과 다시 만나게 되고 웃음꽃이 만발하는 분위기 속에서 큰 위안과 기쁨을 얻게 됨을 말하고 있다.

는 관점에 따라서는 작품 全篇에 대한 예측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행본 《蘇軾詩集》과 같은 책들에서 <竹枝歌> 9章은 1首로 <和陶時運>은 4首로 파악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소식의 <竹枝歌>와 ‘화도시’의 예를 통해서, 우리는 시가 작품 단위인 章이 篇에 종속된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독립된 것인지 판단함에 있어, 원저자의 언급이나 작품의 내용 그리고 작품 창작의 역사적 배경이나 역대 판본 속에서의 작품 수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볼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거꾸로 말해보면, 위와 같은 종합적 고찰을 바탕으로 작품 단위(특히 章)의 의미와 경계가 명확해진다면, 우리는 보다 합리적으로 작품 수를 산출해낼 수 있게 되고 기존의 혼선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작품 단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도 없이 막연한 판단에 따라 작품 수를 파악하는 것은 결코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인 태도가 아니므로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 4. 나오며

지금까지 필자는 시가 작품 수 계산에 있어서의 혼선 양상을 분석하였고, 작품 단위에 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해서 이른바 ‘일정한 규칙’을 발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작품 수를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상의 고찰과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篇과 章 그리고 首는 대체로 서로 바뀌 쓸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章이 篇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독립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깔린다.

둘째, 篇에 종속된 章의 경우엔 독립된 한 작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首와 바뀌 쓸 수 없고 작품 수 계산에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章이 篇에 종속된 것인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독립된 것인지는 일차적

으로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간혹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저자 본인의 언급이나 각 작품의 문헌적 수록 양상 혹은 역사적 계승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를 마무리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다시 소식 '화도시'의 總數와 顧易生의 주장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한다. 처음에 본고를 기획하면서 필자는 顧易生의 작품 단위에 대한 견해에 의문이 생겼고, '拙稿'에서 주장한 소식 '화도시'의 총수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소식 '화도시'의 총수는 '拙稿'에서 주장한 것과 마찬가지로 109首<sup>42)</sup>로 파악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顧易生의 주장을 다시 한 번 꼼꼼히 되새겨본 결과, 그가 '篇'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으면서 '篇'에 종속된 '章'이라고 비교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어떤 새로운 연구결과를 도출하거나 기존 학설의 오류를 바로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서 필자는 시가 작품 단위, 특히 章의 용법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욱 명확한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章이 篇에 종속된 것인지 독립된 것인지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함을 역설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拙稿'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고, 顧易生과 같은 학자가 언급한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충할 수 있었으며<sup>43)</sup>, 최종적으로는 시가 작품 수 계산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

42) 만약 辭賦類인 <和陶歸去來分辭>를 제외시킨다면 108首라 할 수 있겠으나, 관례적으로는 이 작품 역시 '화도시'의 작품 수에 포함시킨다. 한편 이 '109'라는 숫자는 소철 <子瞻和陶淵明詩集引>에 인용된 소식의 편지글 속의 숫자 "凡一百有九篇"과 정확히 일치한다. 소철의 이 글은 紹聖4年(1097) 12월 19일에 지어졌는데, 王文誥는 이에 근거하여 이 날짜를 전후로 소식 '화도시'를 109首와 15首로 나누어 편년을 시도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顧易生은 다른 계산법을 바탕으로 소식 '화도시' 109首는 모두 紹聖4年 12월 19일 이전에 지어졌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王文誥는 계산법이 잘못되었고 顧易生은 편년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전자의 경우는 본고의 논의가 충분한 이유가 될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는 1097년 12월 19일 이후에 지어진 '화도시'가 분명히 존재한다. ('拙稿' 제1장 제3절을 참조하기 바람) "凡一百有九篇"은 주로 소식시 관련 판본에 나오는 문자로, 소철이 스스로 編定한 것으로 알려진 《樂城後集》에 적힌 "凡百數十篇"과는 차이가 있다. 어쩌면 "凡一百有九篇"은 후대인들이 소식 '화도시'를 출간하면서 남긴 작품 총수를 바탕으로 引文(서문) 상의 글자를 수정한 것일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고의 의의를 스스로 찾아본다.

<표1> 劉禹錫 <竹枝詞>와 蘇軾 <竹枝歌> 내용 비교

편/장	劉禹錫 <竹枝詞>	蘇軾 <竹枝歌>	
1	蜀명의 봄 풍광 속에서 나그네의 향수를 노래함.	蒼梧山과 湘水를 배경으로 舜임금과 그의 二妃 娥皇 女英의 일을 노래함.	舜임금
2	쉽게 지는 붉은 꽃으로 님의 뜻을 무한히 흐르는 물결로 자기의 근심을 비유함.	이비가 순임금을 찾았지만 그가 이미 세상을 떠났음을 알고 대나무에 눈물을 뿌린 일을 노래함.	二妃
3	봄날 비간 뒤 瀼西지방 풍광과 버들가지 핀 강 주변에 사람들이 오가며 노래하는 장면을 읊음.	오늘날 사람들이 천 년 전에 죽은 屈原을 애도하는 장면을 그림.	屈原
4	배를 잠시 정박한 사이 어느 여인이 成都 萬里橋에 거주하는 지아비에게 편지를 전해줄 것을 부탁한다는 내용임.	屈原의 충직함을 모르고 물고기가 그의 시신을 먹을까 걱정하며 음식을 따로 준비하는 풍습을 노래함.	
5	봄날 촉망의 부녀자들이 踏青하는 것을 읊음.	굴원의 충언을 무시하고 秦나라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楚懷王의 일을 노래함.	楚懷王
6	灩澦堆 바위의 견고함을 보고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함을 한탄함.	楚懷王이 돌아오지 못한 일을 두고 南公이 애통해한 것을 노래함.	
7	예부터 험난한 瞿唐峽의 물길을 보고 사람의 마음이 그것만 못하여 아무 까닭 없이 波瀾을 일으킴을 한탄함.	項羽가 楚지방 농부들을 모아 기병한 사실을 노래함.	項羽
8	안개 낀 巫峽에서 근심에 젖은 이의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은 윈송이의 소리가 구슬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임을 읊음.	項羽의 패업과 멸망을 읊음.	
9	봄날 촉망 산촌 마을에서 아녀자들은 물을 길고 남정네들은 화전을 일구는 장면을 묘사함.	富貴榮華가 덧없고 人間事 또한 無常함에도, 楚 땅에서는 상기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이 전승되며 오랜 세월동안 슬픈 노래를 부르게 되었음을 말함.	

43) 顧易生の 경우 章이 본고에서와 같이 두 가지 용법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하지 않았고, 또한 四言體 '화도시'의 각 章이 왜 篇에 종속된 章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參考文獻〉

- [漢]司馬遷, [劉宋]裴駰 集解, 《史記》卷47, 北京: 中華書局, 1997.
- [漢]班固, [唐]顏師古 注,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97.
- [晉]陶潛, [明]周履靖 和韻, 《五柳贊歌》(《叢書集成新編》本),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86.
- \_\_\_\_\_, [清]陶澍 注, 《靖節先生集》(《四部備要》本),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9.
- \_\_\_\_\_, 楊勇 校箋, 《陶淵明集校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7.
- [唐]白居易, 朱金城 箋校, 《白居易集箋校》卷2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 [唐]劉禹錫, 瞿蛻園 箋證, 《劉禹錫集箋證》,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5.
- [宋]蘇軾, 《東坡先生和陶淵明詩》(四卷), 臺灣中央圖書館 所藏 宋黃州刊本(影印本).
- \_\_\_\_\_, [宋]王十朋集注, 《增刊校正王狀元集注分類東坡先生詩》, 《四部叢刊》本(電子版).
- \_\_\_\_\_, 《東坡七集》(《四部備要》本), 臺北: 臺灣中華書局, 1970.
- \_\_\_\_\_, [清]邵長蘅刪補, 《施注蘇詩》, 《文淵閣四庫全書》本(電子版).
- \_\_\_\_\_, [清]馮應榴 輯注, 黃任軻·朱懷春 校點, 《蘇軾詩集合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1.
- \_\_\_\_\_, [清]王文誥 輯注, 孔凡禮 點校, 《蘇軾詩集》, 北京: 中華書局, 1996.
- [宋]蘇轍 著, 陳宏天·高秀方 點校, 《蘇轍集》, 北京: 中華書局, 1999.
- [宋]施元之·顧景蕃 合注, 鄭騫·嚴一萍 編校, 《增補足本施顧注蘇詩》, 臺北: 藝文印書館, 1980.
- [宋]洪興祖, 白化文 等 點校, 《楚辭補注》, 北京: 中華書局, 2002.
- 申欽, 《象村稿》, 韓國古典翻譯院 編, 《韓國文集叢刊》第72冊.
- 孔凡禮, 《孔凡禮古典文學論集》, 北京: 學苑出版社, 1999.
- 楊伯峻, 《論語譯注》, 北京: 中華書局, 2002.
- 袁行霈, 《陶淵明集箋注》, 北京: 中華書局, 2003.
- 王叔岷, 《陶淵明詩箋證稿》, 北京: 中華書局, 2007.
- 金潤惠, <梅月堂의 '和陶詩'에 대한 研究>, 《漢文教育研究》, 1990.
- 김인호, <楚辭 九章의 巫歌性 고찰>, 《인문연구논집》 제4집, 1992.
- 金周伯, <象村 申欽의 '和陶詩' 研究>, 《漢文學論集》 제10집, 1992.
- 曾棗莊, <蘇軾著述生前編刻情況考略>, 《中華文史論叢》, 1984년 제4기
- 吳紹鈞·陳彩娟, <論朝鮮詩人金時習的和陶詩>,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8年 第2期.

周葦風, <論《楚辭》的篇次>,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3년 1월.  
拙稿, <蘇軾和陶詩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2008.

### < 中文提要 >

在中國古代詩歌, 尤其是“和陶詩”的計數上, 以往的研究搞得比較混亂, 出現了其作品規模一樣而數目却不同的情況。本文筆者曾經在拙稿《蘇軾“和陶詩”研究》中根據顧易生先生的說法, 提出四言詩的各章不能用“首”字加以替換, 以此來批評清王文誥的一百二十四首說。而後來又發現了些“首”或“篇”能夠與“章”互相替換的例子, 因此有必要重新探討詩歌計數單位的正確用法, 以期更爲合理地算出古代詩歌的數目。下面概括本文中討論的內容。

第一、如果“章”不從屬於“篇”而相對來說具有獨立性的話, “篇”或“首”可以和“章”互相替換。

第二、從屬於“篇”的“章”不能成爲一個單獨的作品, 因此不可以與“首”加以替換。

第三、“章”是否從屬於“篇”, 我們首先可以從作品本身的內容中考察。但是也會有比較模糊的情況, 因此我們又有必要考察詩人本人的說法以及各作品在歷代版本中的收錄情況, 並且還有必要對特定詩歌體裁進行歷史性的探討。

通過以上的研究, 本文筆者比以前更爲清楚地了解到詩歌計數單位的正確用法了。希望本研究能夠給讀者提供在詩歌數目計算上的更爲合理的標準和方案。

關鍵詞: 詩歌、“和陶詩”、蘇軾、<竹枝歌>、數目、篇、首、章、《詩經》、楚辭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6. 29.	2012. 7. 31.	2012. 8. 14.	2012. 8. 21.	2012. 8. 31.